

國譯『越南亡國史』에 관한 一考察

崔 起 榮*

I. 머리말

II. 國譯『越南亡國史』의 刊行

III. 國譯『越南亡國史』의 普及

IV. 國譯『越南亡國史』의 影響

V. 國譯『越南亡國史』에 대한 彈壓

VI. 맺는말

I. 머리말

1905년 乙巳保護條約의 체결을 전후하여, 한국민들은 민족적 위기를 국민 스스로의 힘으로 타개하여야 된다는 인식을 갖고 이른바 愛國啓蒙運動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치·사회단체와 언론기관의 활동을 비롯하여, 私立學校의 설립을 통한 근대교육의 보급이라든가, 종교운동, 혹은 계몽적인 출판물의 간행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학문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史學에 대한 관심은 실로 높았다. 물론 本國史 뿐만 아니라 世界史도 포함되어 있었고, 여기에 또 特記할 만한 것은 建國史나 獨立史, 英雄傳 그리고 亡國史에 대한 관심이었다. 『美國獨立史』·『意大利獨立史』·『瑞士建國誌』·『伊太利建國三傑傳』·『華盛頓傳』·『愛國婦人傳』·『波蘭末年戰史』·『埃及近世史』·『越南亡國史』 등이 그 예에 속한다. 그것은 대부분 中國과 日本에서 저술되거나 번역된 서적들을 다시 번역한 것이었다.¹⁾ 獨立史나 建國史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나,

* 西江大學校 講師

1) 金秉喆,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乙酉文化社, 1975) pp. 176~280에서 이 시기에 번역된 서적들의 臺本을 비롯한 문제들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亡國史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다는 것은 어떠한 까닭에서였을까? 그것은亡國史가 국민계몽에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바꾸어 말하면 외국의亡國史를 통하여亡國의 과정과 참상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國權恢復意識을 확고히 갖게 하려는 데 있었다.²⁾

그리하여 波蘭·埃及·越南 등 여러 나라의亡國史가 소개되었는데, 그 중에서 舊韓末에 가장 널리 읽힌 것은『越南亡國史』였던 것 같다. 이것은 특히 다른亡國史와는 달리 國漢文과, 2種의 國文으로 된 國譯本이 출간되어 널리 읽힐 수 있었다는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그 당연한 결과로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 입에 틀림이 없다.

本稿는 舊韓末에 널리 읽히고 영향을 미친 國譯『越南亡國史』에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 이를테면 그 刊行, 보급과 영향, 그리고 정부의 押收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같은 연구는 舊韓末社會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라 믿는다.³⁾

II. 國譯『越南亡國史』의 刊行

『越南亡國史』는 본래 越南人 巢南子와 淸國人 梁啓超(1873~1929)의合作으로 1905년 10월 경에 上海의 廣智書局에서 간행되었다.⁴⁾ 巢南子は別號이고 그의 본명은 潘佩珠(Phan Boi Chau: 1867~1940)인 越南의 대표

2) 이러한 점은 「大韓每日申報」 1905년 10월 20일자 〈歷史藥要〉에

……本社에서 最히 期望하는 者는 韓國人士의 知識을 開發코져 恊인되 知識의 開發은 歷史가 緊要하니 蓋其興亡得失之業이 可鑑可戒호 者가 瞭然具在호 故라 就中 失政亡國호 事蹟이 더욱 人心을 感解케 하는 效力이 有호 故로……

라고 한 것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3) 國譯『越南亡國史』에 대한 연구로는 國文學界에서 崔元植, 「아시아의 連帶—『越南亡國史』小考」; 白樂晴·廉武雄 編, 『韓國文學의 現段階』II (創作과 批評社, 1983)가 있을 뿐이다.

4) 이 책의 1905년 上海 廣智書局에서 발간된 初刊本은 구해 볼 수 없었다. 다만 玄采의 國譯本에 번역된 梁啓超의 序文이 「乙巳九月」로 되어 있으므로 1905년 10월 경에 간행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적인 독립운동가였고, 梁啓超는 잘 알려진 清末의 개혁사상가요 文人이었다. 이들이 1905년 日本에서 만나, 1883년 프랑스의 보호국이 되면서 식민지로 전락한 越南의 亡國에 관하여 논의한 것을 적은 것이 바로 本書였다.⁵⁾ 本書의 내용은 프랑스의 越南 침략과 아시아에 대한 帝國主義列強의 위협을 비난한 〈記越南亡人之言〉과 越南의 亡國 과정을 설명한 〈越南亡國原因及事實〉, 또 抗佛活動을 전개한 義兵將들의 傳記인 〈國亡時志士小傳〉, 亡國 후의 慘狀을 소개한 〈法人困弱愚瞽越南之情狀〉, 그리고 越南의 독립에 대한 展望을 다룬 〈越南之將來〉로 되어 있다.⁶⁾ 그 가운데 〈越南亡國原因及事實〉·〈國亡時志士小傳〉·〈法人困弱愚瞽越南之情狀〉은 潘佩珠가 직접 쓴 것이고, 〈記越南亡人之言〉과 〈越南之將來〉는 潘佩珠와 梁啓超가 筆談한 것을 梁啓超가 정리한 것이었다. 그밖에 本書에는 越南의 亡國을 설명하기 위하여 越南과 淸國 그리고 프랑스 사이의 外交關係를 소개한 梁啓超의 저술인 「越南小志」가 附錄으로 수록되어 있었다.⁷⁾

本書를 간행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없으나 아마도 틀림없이 梁啓超와 潘佩珠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을 것이다. 즉 梁啓超는 列強의 침략위협을 받고 있던 中國의 國權守護에 대한 관심에서,⁸⁾

- 5) 1905년 당시 梁啓超는 日本 橫濱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潘佩珠는 越南獨立運動에 필요한 무기를 구입코자 日本을 방문하고 있었다. 潘佩珠 관해선 다음과 같은 川本邦衛씨의 연구가 참조된다.

川本邦衛, 「潘佩珠の日本觀」, 『歷史學研究』 391, 1972; 「維新東遊期に於ける潘佩珠の思想」, 『思想』 1973년 2월호; 「潘佩珠小史—その生涯と時代」, 『ヴェトナム 亡國史 他』, 東洋文庫 73(平凡社, 東京, 1977); 「東遊運動の挫折」, 『山本達郎博士古稀紀念 東南アジア・インドの社會と文化』上(山川出版社, 1980).

그밖에 金基周씨의 연구도 참조된다.

金基周, 「越南의 民族運動」, 『서울教育大學論文集』 9, 1976; 「開明派文紳의 啓導와 民族運動」, 『서울教育大學論文集』 16, 1983.

- 6) 『越南亡國史』: 楊家駱 編, 『中法戰爭文獻彙編』, 中國近代史文獻彙編 7(鼎文書局, 臺北, 1973).

- 7) 葉乾坤, 『梁啓超와 舊清末文學』(法典出版社, 1980) p. 109.

- 8) 예컨대 『越南亡國史』: 『飲冰室專集』 卷 19(中華書局, 上海, 1932) p. 1의 〈發端〉을 보면

……吾子誠爲言越亡前事 或我國太多人間而自惕 因慨然起 有復天日之一日則

潘佩珠는 越南人의 國權恢復意識의 고취를 위하여 自國의 亡國事實을 정리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니까 梁啓超는 中國人 독자를, 潘佩珠는 越南人 독자를 생각하고 本書를 저술하였던 것이다. 실제로 本書는 中國과 越南에서 널리 읽혔다.⁹⁾ 당시 越南人들은 쉽게 漢文을 읽을 수 있었으므로 간행되자 즉시 越南에 유입되어 읽혔던 것이다.

그러나 本書는 한편으로 漢文文化圈에 있던 한국에도 移入되어 널리 읽혔다.¹⁰⁾ 1906년 9월, 그러니까 本書가 中國에서 간행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당시 濟州島에 流配되어 있던 金允植(1835~1922)이 읽고 있었던 것을 보아 알 수 있다.¹¹⁾ 濟州島에 유배된 인물까지도 읽고 있을 만큼 本書는 한국에서 널리 읽히고 있었던 것이다.

本書가 이처럼 한국에서 널리 읽힐 수 있었던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本書의 撰者가 梁啓超였다는 점이다. 梁啓超의 대표적인 저술인 『飲冰室文集』을 포함하여 많은 논설과 저서가 舊韓末에 소개되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¹²⁾ 따라서 그가 편찬한 本書는 다른 서적들 보다 쉽게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 둘째, 당시 한국이 처해 있던 상황이 越南이 亡國에 이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국민들이 인식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本書를 읽은 金允植이

讀越南亡國史 越南亡命客巢南子述 與梁啓超問答者也 讀之令人悲憤 不許天壤間 有此悍戾忍暴之種 如佛國者也 今日東洋事勢日趨危迫 如我國所遇 不暇哀越南也噫¹³⁾

豈惟我國賴之……

라고 한 것이라든지, 玄采의 國譯本에 번역된 梁啓超의 序文을 통해서도 짐작은 된다.

- 9) David G. Marr, *Vietnamese AntiColonialism 1885~1925* (Berkeley and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p. 115.
- 10) 예컨대 「大韓每日申報」 1906년 9월 15일자 광고란에 게재된 金相萬書館의 도서목록에 『越南亡國史』가 포함되어있던 것을 보면, 이 책이 수입되어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1) 金允植, 『續陰晴史』 下(國史編纂委員會, 1960) p. 187.
- 12) 李光麟, 「舊韓末 進化論의 受容과 그 影響」, 『世林韓國學論叢』 1, 1977; 『韓國開化思想研究』(一潮閣, 1979) p. 262 및 葉乾坤, 전제서, pp. 117~147.
- 13) 『續陰晴史』 下, p. 187.

라고 하여 한국이 처한 상황이 越南과 다르지 않다고 인식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또 「京鄉新聞」도 本書가 널리 읽힌 이유를

……년전에 일본이 우리나라에 준 일을 우리 인민의 원혼이 골절에 소모지 아닌
이가 업는지라 아모 사름이든지 앓으면 그 앓은 거슬 물니쳐 버리려 하고 만일
브릴 수 업스면 다른 사름의 앓은 거슬 생각하느 거시 제 앓은 거슬 좀 쉽게 견디
려 하는 모양과 같이 우리가 일본권세를 물니쳐 브릴 수 업는 거슬 남흥으로 안
남사름들이 범국권세를 물니쳐 브릴 수 업는 거슬 생각하여 우리 마음을 좀 푸는
모양이오……¹⁴⁾

라 하여 국민들이 日本의 침략을 받고 있던 한국과, 프랑스의 식민지가 된
越南에 대하여 同質意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찾고 있었다. 梁啓超도
本書에서 한국을 ‘제 2의 越南’이 될 기미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
하였다.¹⁵⁾

越南亡國의 사실은 1906년 전반기부터 크게 부각되었다. 本書가 유입되
면서 越南의 亡國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皇城新聞」
이 1906년 5월 3일자와 4일자에 越南亡國의 과정을 소개한 <述安南近事
大略>이란 논설을 게재하였고, 5월 5일자에는 越南의 亡國을 애도한 <哀
安南>이라는 논설을 게재하였다. 특히 <哀安南>에서 「皇城新聞」은

……嗚乎悲夫라 安南도 亦數千年 東洋之一國으로 今日에 陷此悲境하니 吾輩는
不堪於同感之情일시 述其大概하야 以供我同胞之共覽焉하노니 願我韓國에도 其地方
人衆이 亦同等於安南이오 其萎靡衰弱도 亦均度於安南하니 迨此各國이 睚眦競爭之
日하야 不能自修其自強之策하고 只以勢利而相爭하다가 安知前途에 不蹈於安南之
覆轍耶아 此所大懼而大惕者이니 今에 奚暇於哀安南之人哉아 只可自哀而自省也니
誠望有志憂國之士는 宜以安南而爲鑒하야 亟圖奮勵自強之術하야 毋使世人으로 復
如安南之吊하면 吾輩國民之幸福이 豈有大於斯者乎아 記者는 請以此警告之하노라

고 하여 東洋의 국가인 越南의 亡國을 본보기로 삼아 한국도 越南과 같은

14) 「京鄉新聞」 1908년 4월 10일자 <근위 나는 칙을 명문>.

15) 『越南亡國史』; 『中法戰爭文獻集編』 p. 514.

처지에 이르지 않도록 自強에 분발할 것을 국민들에게 촉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신문의 논설은 國權恢復에 대한 국민의 관심 뿐 아니라 『越南亡國史』라는 서적에 대한 관심도 증대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本書는 漢文으로 저술되었기 때문에 지식인들에게 국한되어 읽힌 반면, 漢文에 능숙하지 못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쉽게 읽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本書의 國譯이 시도된 것은 바로 越南亡國의 과정과 亡國 후의 참상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 國權恢復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그것은 1906년 8월 28일자부터 9월 5일까지 7차례에 걸쳐 <讀越南亡國史>라는 기사를 게재한 「皇城新聞」이

嗚乎라 亡國之恨이 自古何限이리오만은 豈有如越南之慘酷者乎아 國號는 依然是 大南이오 君號는 巍然是 皇帝로터 全國權利도 外人이 收盡하고 全國膏血도 外人이 吸盡하고 君臣上下 老少男女의 皮膚肌肉을 一任外人의 剝之割之키야 必欲淨殺乃 已키니 眞是求生不得이오 求死不得이라……越南은 已矣어니와 天下萬國에 將來之 越南이 許多키니 濫戒此前車之覆轍키야 無復効越南之自亡키면 雖有千百法國이라도 其將奈何리오 今에 舉筆書此키다가 想像越南之民키면 不覺眼淚洗面에 再三 嗚咽也로다……¹⁶⁾

라고 하여 越南亡國 후의 참상을 소개한 뒤, 한국이 越南의 前轍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기사를 연재한다고 밝혔던 것에서 알 수 있다. <讀越南亡國史>는 本書를 읽은 소감을 적은 내용이 아니라, 저자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本書 가운데 潘佩珠가 저술한 <越南亡國原因及事實>·<國亡時志士小傳>·<法人困弱愚瞽越南之情狀> 부분만을 번역한 것이었다.

本書의 國譯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신문에 게재되었으므로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읽힐 수는 없었다. 또 本書의 完譯도 아니었다. 「皇城新聞」에 <讀越南亡國史>가 연재된 지 2개월이 조금 지난 1906년 11월에 國譯『越南亡國史』가 간행된 것은 그러한 까닭에서였다. 이 國譯본은 玄采(1856~1925)에 의하여 國漢文으로 번역되어 판매되었으므로 국민들은 쉽게 사서

16) 「皇城新聞」 1906년 8월 28일자 <讀越南亡國史>.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國譯本은 漢文本을 그대로 번역한 것은 아니었다. 玄采는 漢文本의 부록이었던 「越南小志」를 제외하고, 外勢의 침략을 경계한 梁啓超의 논설 〈越法兩國交涉〉·〈滅國新論〉·〈日本の朝鮮〉과 〈越南提督劉永福檄文〉을 부록으로 수록하였던 것이다. 〈越法兩國交涉〉은 漢文本의 부록이었던 「越南小志」 가운데 越南과 프랑스가 체결한 조약 및 프랑스가 越南에 취한 조치들을 소개한 〈與法國之交涉〉을, 〈滅國新論〉은 『飲冰室文集』에 수록되고 또 당시 한국에서도 주목 받던 〈滅國新法論〉을 번역한 것이었다.¹⁷⁾ 〈日本の朝鮮〉은 한국정부의 一進會에 대한 탄압을 저지하기 위하여 日本軍이 1905년 1월 초에 서울 시내 치안을 장악하였던 사건을 비난한 〈日本之朝鮮〉의 번역이었으며,¹⁸⁾ 〈越南提督劉永福檄文〉은 中國인이면서 越南의 將帥로 활약한 劉永福이 越南人の 反佛活動을 독려한 檄文의 漢文原文을 수록한 것이었다.¹⁹⁾ 이 부록들은 모두 越南의 亡國史 만큼이나 국민들에게 亡國에 대한 경각심과 한국이 처한 상황을 알리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수록되었을 것이다.

번역자인 玄采는 舊韓末에 이름 높던 저술가요 번역가였다. 그는 中人譯官 출신으로 주로 學部 編輯局에 재직하면서 韓國史와 韓國地理, 世界史에 대한 저술과 번역에 진력한 인물이었다.²⁰⁾ 또 國譯本에는 安鍾和(1860~1924)의 序文이 수록되었는데, 그는 1894년 文科에 급제하여 中樞院

17) 梁啓超, 『飲冰室文集』 通論(廣智書局, 上海, 1905). 이 논설은 「大韓每日申報」 1906년 9월 30일자의 논설 〈舉滅國新法論〉(하) 告全韓人士에 소개되었고, 「朝陽報」 제 8호(1906년 10월 25일자) 이후 玄采의 번역으로 연재되기도 하였다. 金秉喆, 『韓國近代翻譯文學史研究』 p. 214.

18) 〈日本之朝鮮〉은 『飲冰室文集』과 丁文江 撰, 『梁仕公先生年譜長編初稿』 上(世界書局, 臺北, 1962) p. 201에 의하면 1904년의 저작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내용으로 보아 1905년 초에 쓰여졌음이 틀림없다.

19) 劉永福에 대해선 『ヴェトナム亡國史 他』 p. 122의 注 3 참조.

20) 玄采는 『普通教科東國歷史』·『大韓地誌』(1899년), 『東國史略』·『中等教科東國史略』(1906년) 등을 저술하였고, 『俄國戰史』(1898년), 『中東戰記』(1899년), 『清國戊戌政變記』(1900년), 『萬國史記』·『法蘭西新史』·『越南亡國史』(1906년) 등을 번역하였다. 그에 관해선 盧秀子, 「白堂 玄采研究」, 『梨大史苑』 8, 1969 참조.

議官 등을 역임하였으며 저술가로도 이름이 높았다.²¹⁾ 그밖에 國譯本의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玄公廉(1875~?)은 玄采의 아들로 日本과 培材學堂에서 수학한 바 있던 저술가요 出版人이었다.²²⁾ 이들 國譯本 간행에 참여한 인물들은 대체로 전통적인 儒學敎育을 받았지만, 신학문에도 조예가 깊은 소위 新舊兼修의 지식인이었다. 그들의 저술이 韓國史와 韓國地理 뿐만 아니라 世界史·世界地理·정치학·가정학·광물학 등에 이르고 있음에서 짐작할 수 있다. 또 관직에 재임한 경우도 있었지만 國譯本을 출간한 시기에는 모두 民間에 있었다. 이 점은 이들이 당시 親日政府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國譯本은 新舊兼修의 反日的인 지식인들에 의하여 간행되었던 것이다.

國譯本 간행의 목적은 1907년 1월 5일자의 「皇城新聞」에 게재된 廣告文에서도 찾아진다. 즉,

嗚呼 古今天下에 最可畏可哀者 莫過於亡國之民族而蓋越南은 我亞洲之鄰國으로 竟爲今日法人之版圖이엿스니 此爲國民者之所鑑戒而此書에 詳載越南亡國之事蹟及 近世情形이야 當時法人의 蹂躪之慘狀을 瞭然知得케 하엿소오니 惟願愛國之士는 必試一讀焉

이라 하여 越南亡國의 사실을 鑑戒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 간행의 목적이 國權恢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목적은 玄采의 번역과정에서도 드러난다. 예컨대 <記越南亡人之言>의 번역에 있어 한국을 '제 2의 越南'에 비유한 梁啓超의 글

21) 安鍾和의 저술로는 『初等倫理學敎科書』·『國家學綱領』(1907년), 『初等本國歷史』·『國朝人物志』·『萬國地理大要』(1909년), 『初等大韓地理』(1910년) 등이 있다. 또 그는 1905년 11월 乙巳保護條約이 체결되자 趙秉世·閔泳煥 등과 함께 11월 26일에 조약의 폐기를 주장하는 聯名上疏를 올리기도 하였다. 「大韓每日申報」 1905년 11월 28일자 잡보 <百官再疏> 참조.

22) 玄公廉의 저술로는 『日露戰記』·『新撰家政學』(1907년), 『미국고대통명 싸워 일트전』·『中等續物學』·『植物學』·『新訂分道大韓帝國地圖』(1908년) 등이 있다. 「皇城新聞」 1905년 4월 5일자 잡보 <玄氏有志> 및 1907년 6월 21일자 잡보 <書籍業組合>, 『협성회회보』 1898년 1월 1일자 <회중잡보>, 鄭喬, 『大韓季年史』 上(國史編纂委員會, 1957) p. 341, p. 392 참조.

뒤에 原文에는 없는 日本의 한국침략의 大概를 첨가시키고 있다. 첨가된 내용은 대체로 梁啓超가 1904년에 썼고, 『飲冰室文集』 3版에 수록한 〈朝鮮亡國史略〉을 요약한 것이었다.²³⁾ 그것은 國譯本이 越南亡國의 사실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日本의 國權侵奪을 경계하도록 하였음을 알려준다고 하겠다.

國譯本은 간행되자마자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그것은 간행된 지 6개월만인 1907년 5월에 再刊되었을 뿐 아니라,²⁴⁾ 大邱에 있던 출판사인 廣文社에서도 발간하고 있음에서 짐작할 수 있다.²⁵⁾ 지방에서도 國譯本이 간행되었다는 것은 지방, 특히 경상도 지역의 수요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또 國譯本은 그 全文이 1907년 7월에 간행된 玄采 저술의 『幼年必讀釋義』 下編에 轉載되었다. 이 책은 그 보다 2개월 앞서 간행된 역시 玄采 저술의 『幼年必讀』이라는 초등용 교과서에 대한 교사용지도서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幼年必讀』은 당시 대부분의 私立學校에서 사용하고 있던 교과서였다.²⁶⁾ 따라서 『幼年必讀釋義』에 國譯本의 全文이 轉載되었다는 것은 越南亡國의 내용이 초등학교의 학도들에게까지 소개되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23) 이 점은 『越南亡國史』; 『中法戰爭文獻彙編』 p. 514와 玄采의 國譯『越南亡國史』(亞細亞文化社 影仁本, 1979) pp. 16~18, 및 〈朝鮮亡國史略〉, 『飲冰室文集』 上 pp. 107~111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24) 이 再刊本에는 初刊本에 수록되었던 〈越南提督劉永福檄文〉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越南人의 抗佛活動이 外國人將帥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인상을 주게 되므로, 혹 국민들에게 의타적인 경향을 조장하지 않을까 우려하였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다.

25) 廣文社本은 初刊本을 그대로 간행한 것이었다. 이 점은 〈越南提督劉永福檄文〉이 수록되었음에서 확인된다. 이 책은 현재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圖書館에 등록번호 017541로 소장되어 있는데, 본래 安春根氏의 소장이었다. 廣文社는 1900년 10월에 玄采·張志淵·梁在薺 등이 설립하여 丁若鏞의 『牧民心書』·『欽欽新書』 등을 간행한 출판사였다. 大邱의 廣文社 역시 社號로 보아 서울의 廣文社와 전혀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玄采가 서울의 廣文社에 관여했던 만큼 大邱의 廣文社와도 관계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張志淵, 『韋庵文稿』(國史編纂委員會, 1956) p. 475.

26) 『幼年必讀』에 관한 검토는 金祥起, 「韓末 私立學校의 教育理念과 新教育救國運動」, 『清溪史學』 1, 1984 pp. 81~84 참조.

Ⅲ. 國譯『越南亡國史』의 普及

國譯『越南亡國史』는 국민들의 호응을 받으며 널리 읽혔던 것 같다. 그것은 國譯本이 6개월 만에 再刊된 데다가 大邱의 廣文社에서도 출간되었으며, 또 『幼年必讀釋義』에 그 全文이 轉載되었다는 것으로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한편 國譯本이 널리 읽히자 지식인들 가운데에서는 이를 크게 우러하는 이도 있었다. 이를테면 舊韓末 經濟學者로 이름 높던 金大熙(1878~?)는 1907년 9월에 간행된 그의 저술 『二十世紀朝鮮論』에서

……又近者에 至하야 亡國 亡國이라 하고 我國人民의 恒言으로 되얏시며 新刊한 冊子의 流行하는 것을 見하면 越南亡國史 又は 波蘭亡國史 等を 著述하야 反히 人民의 氣象을 縮殺하니 初等經營인 則 警戒할 것이로되 民氣는 落心千萬하니 警戒로 論하드라도 警戒은 하고 其向道를 開하야 與하지 아니하면 是는 窮盡氣로 民을 驅逐이라……²⁷⁾

고 하여 亡國史의 지나친 강조가 국민의 기상을 위축시킨다고 지적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越南亡國史』에 대한 국민의 호응은 컸다. 그리하여 1907년 11월과 12월에 玄采의 國漢文本을 다시 國文으로 번역한 『월남 망국소』가 거의 동시에 2種이나 출간되었던 것이다.²⁸⁾ 周時經(1876~1914)의 번역인 博文書館本과 李相益(1881~?) 번역, 玄公廉 교열 및 발행본이 그것이었다. 물론 이같은 國文本의 출간은 『越南亡國史』의 독자층을

27) 金大熙, 『二十世紀朝鮮論』(崔炳玉 발행, 1907) p. 131. 金大熙는 慶應義塾 普通科와 私立東京商業學校를 졸업한 인물로 舊韓末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였다. 金大熙와 『二十世紀朝鮮論』에 관한 검토는 李基俊, 『韓末西歐經濟學導入史研究』(一潮閣, 1985) pp. 248~271 참조.

28) 國文本이 國漢文本을 다시 번역한 것임은 玄采가 첨가한 부분이 그대로 번역되었고, 그 부록이 玄采의 편집과 같은 점에서 확인된다. 金秉喆, 전제서, pp. 216~217에서 原本을 번역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이다.

크게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었다. 이 점은 周時經 번역의 國文本에 수록된 博文書館主 盧益亨의 〈서〉에서도 짐작된다. 즉,

……월남이 망한 소리는 우리에게 극히 경계될 만한 일이라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론 귀천남녀로소하고 다 이런 일을 알아야 크게 경계되며 시세의 크고 김혼 사실을 세드라 우리가 다 잊더케 하여야 이 환란 속에서 생명을 보전 할지 십각이 나리라 이럼으로 한문을 모르는 이들도 이 일을 다 보게 하라고 우리 서관에서 이조치 순국문으로 번역하여 전파하노라.²⁹⁾

고 하여 越南의 亡國史가 국민들에게 중요한 내용이지만 漢文을 모르는 계층은 읽을 수 없으므로 國文 번역본을 간행한다고 하였다. 이 목적은 크게 달성되고 있었다. 周時經이 번역한 國文本의 경우 간행된 지 4개월만에 再刊되었고, 다시 2개월 뒤에 3刊되었던 것이다.³⁰⁾ 國漢文本 보다 훨씬 빠르게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국문 번역자인 周時經은 잘 알려진 國語學者로 1894년 배재학당에 입학하여 수학한 이래, 協成會와 獨立協會에서 활동하였고 「독립신문」의 간행에도 참여한 인물이었다.³¹⁾ 또 다른 번역자인 李相益은 海牙密使로 유명한 李相高(1870~1917)의 實弟로 漢城師範學校의 敎官과 鏡城 咸壹學校의 敎師, 工數學學校의 學監을 역임한 교육자였다.³²⁾ 이들 역시 國漢文 번역본의 간행에 관계한 인물과 같은 新舊兼修의 지식인이었다.

당시 國漢文本과 國文本은 다 같이 널리 보급되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우선 民族教育을 실시하던 전국의 私立學校의 교과서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를테면 平安南道 龍川郡의 私立學校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다.³³⁾

29) 『월남망국사』(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979) p. 103.

30) 『월남망국사』,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p. 192.

31) 愼鏞廈, 「周時經의 愛國啓蒙思想」, 『韓國社會學研究』 1, 1977 참조.

32) 『大韓帝國官員履歷書』(國史編纂委員會, 1972) p. 688과 尹炳奭, 『李相高傳』(一潮閣, 1984),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23일자 잡보〈工數學學校趣旨書〉 및 1908년 9월 12일자 잡보〈李氏寄付〉 참조.

33) 金弘壹, 『大地의 憤怒』(文潮社, 1972) p. 31 및 pp. 35~36.

또다른 이유는 1907년 2월부터 전개된 國債報償運動과의 관련이었다. 이 운동은 大邱 廣文社의 社長 金光濟와 副社長 徐相燾의 발기로 시작되었는데, 그 내용은 國債 1,300萬圓을 전국민이 3개월 동안 斷煙하여 報償하자는 것이었다. 이 운동의 발기에 『越南亡國史』의 영향이 있었다. 즉 그 趣旨書를 보면

……試觀近世新史 國亡民族隨以殄滅 即埃及・越南・波蘭皆可爲徵 只知有身家 不知有君國 則此乃自陷自滅也 今浮厲精神奮發忠義 果非其時乎 今有國債一千三百萬圓 即我韓存亡之關係也 報則國存 不報則國亡 勢所必至 而現自國庫勢難支報 則三千里疆土 將非我國有民有者矣 土地一去 非徒復之無術 烏得免起(越의 誤)南國之民族乎……³⁴⁾

라고 하여 亡國의 예로 埃及・越南・波蘭을 들고, 國債報償運動의 전개가 亡國, 특히 越南과 같은 식민지에 이르지 않기 위함이라고 역설하였다. 바로 이 운동의 발기에 『越南亡國史』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 운동의 전개과정에서 國譯本은 급격히 보급되었다. 國債報償運動이 활발하던 1907년 5월에 國漢文本이 再刊되고, 大邱 廣文社에서 출간된 것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특히 大邱 廣文社는 이 운동을 처음으로 발의한 곳이었다. 廣文社本에 序文을 쓴 張相燾은 바로 이 운동의 첫 발기인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였다.³⁵⁾ 또 번역자인 玄采 역시 이 운동에 적극적이었고³⁶⁾ 國譯本의 발매소였던 金相萬・高裕相・朱翰榮書肆는 義捐金收錢所였으며, 서점주인들은 國債報償期成會의 발기인이었다.³⁷⁾

34) 「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21일자 잡보 〈國債一千三百萬圓報償趣旨〉.

35) 『大韓自強會月報』 9 (1907년 3월 25일자) p. 62.

36) 玄采는 『夜雷』 제 2호(1907년 3월 5일자)에 〈國權恢復 自今日始 國權滅亡 亦自今日始〉를, 같은 잡지 제 3호(1907년 4월 5일자)에 〈斷煙報償論〉을 기고하였고, 1907년 4월 1일에는 國債報償聯合會의 제 1회 임시총회에도 참가하였던 것 같다. 金根洙 編, 『韓國雜誌概觀 및 號別目次集』(永信 아카데미 韓國學研究所, 1973) p. 49 및 柳子厚, 『李儒先生傳』(東邦文化社, 1947) p. 212 참조.

37) 「皇城新聞」 1907년 2월 25일자 잡보 〈國債報償期成會趣旨書〉.

한편 國文本의 출간은 바로 國債報償運動의 확산을 위하여 이루어졌던 것이었다. 번역자 李相益과 교열자 玄公廉은 1907년 2월 22일에 서울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國債報償期成會의 주도적인 발기인이었다.³⁸⁾ 또 玄公廉은 월간지인 『夜雷』의 편집에 관여한 것으로 믿어지는데, 『夜雷』는 초기 國債報償運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³⁹⁾ 그러니까 李相益과 玄公廉이 1907년 12월에 國文本을 간행한 것은 바로 國文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기 때문이었다. 婦女子와 학도를 포함하는 국민들까지 國債報償運動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國文本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國譯本이 國債報償運動의 발기와 전개과정에서 널리 보급될 수 있던 것은 우선 그 내용이 亡國의 과정과 亡國 후의 참상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국민들에게 國權恢復意識을 고취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 國譯本의 부록으로 수록된 〈滅國新論〉의 내용이 國債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언급하였다는 것도 그 보급의 확산을 가져왔을 것이다. 특히 〈滅國新論〉은 國債 이외에도 通商·代練兵·顧問·通道路·煽黨爭·平內亂·助革命 등 弱小國을 침략하는 列強의 방책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이들 新法은 당시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모두 적용될 수 있었다.⁴⁰⁾

38) 註 37)과 同.

39) 玄公廉은 「皇城新聞」 1907년 2월 6일자 잡보 〈大東商會〉와 같은 날자 「大韓每日申報」의 잡보 〈商計活動〉에 의하면 大東商會의 理事로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大東商會에서는 『夜雷』를 간행하였던 것 같다. 大東商會의 會長 吳榮根이 『夜雷』의 발행인이었으며, 任員들의 상당수가 필진이었다. 「大韓每日申報」 1907년 2월 6일자 잡보 〈夜雷始發〉에는 普成專門學校親睦會에서 『夜雷』를 2월 25일부터 간행한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명백한 誤報였다. 그런데 國債報償期成會의 발기인 가운데에는 大東商會의 任員 전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夜雷』의 필진도 상당수 참가하였다. 그리고 夜雷報館은 義捐金收錢所였다. 따라서 大東商會와 『夜雷』의 관계자들에 의하여 초기 國債報償運動이 전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0) 예컨대 日本의 仲介貿易이나 직접무역·借款의 제공·군사교관의 고빙·東學農民運動의 진압·교문관 고빙·철도부설·親日勢力의 형성과 지원·甲申政變의 지원 등은 日本이 한국침략에 사용한 滅國新法의 구체적인 例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설은 國債報償運動이 전개되던 시기에 계속 주목되었다. 이를 떠낸 「大韓每日申報」 1907년 3월 10일자에 寄書로 게재된 桂白山人의 〈報債義捐現狀記〉에 파다한 外債의 도입으로 亡國에 이른 埃及의 경우가 소개

IV. 國譯『越南亡國史』의 影響

國譯『越南亡國史』가 널리 보급되면서 그 영향 또한 컸으니, 우선 國權恢復意識을 고양시켰던 점을 들 수 있다.⁴¹⁾ 그 가운데에서도 무엇보다 國債報償運動의 발기와 전개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던 점은 크게 주목된다.

한편 舊韓末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亡國의 원인을 儒學에서 찾고, 儒學을 배척한 움직임이 있었다. 1905년 乙巳保護條約의 체결로 지식인들의 위기의식이 고조되었고, 國權恢復과 자주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舊學 즉 儒學을 배격하고 신학문의 적극적인 수용을 주장하고 있었다. 나라가 亡國의 위기에 처한 것이 舊學 때문이라고 보았던 것이다.⁴²⁾ 이처럼 지식인들이 儒學의 배척하게 된 데에는 儒學의 고루함과 儒學者의 부패로 亡國에 이른 越南의 경우에서도 자극을 받았으리라 믿어진다. 그것은 越南亡國의 원인을 『越南亡國史』에서 潘佩珠가 儒學의 고루함과 儒學者의 도덕성과 윤리성의 퇴락 등에서 찾고 있었기 때문에 짐작되는 점이다.⁴³⁾ 예컨대 國譯本에서 越南亡國의 원인에 대한 언급을 찾아보면

……越南이 萬一 此時에 兵政을 大修하고 民權을 大振하며 君臣上下가 勵精, 圖治하여 外洋學問을 探究하고 積腐한 規模를 洗刷하였스면 오히려 國을 可爲하겠

되고 있는데, 대체로 〈滅國新法論〉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었다. 또 「皇城新聞」은 1907년 5월 1일자부터 4일자까지 4차례에 걸쳐 〈滅國新法論〉을 게재하였다.

41) 이러한 점은 國譯本이 간행되기 이전인 1906년 9월 9일자와 11일자의 「大韓每日申報」에 〈讀越南史有感〉을 寄書한 肝衡生이 漢文本을 읽고 한국이 越南의 前轍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日本의 한국침략이 프랑스의 越南侵略과 다르지 않다고 인식하였던 경우에서도 짐작된다. 결국 한국이 위치한 정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은 이 책이 국민을 계도하고, 국권회복의식을 고양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한다.

42) 李光麟, 「舊韓末 新學과 舊學과의 論爭」, 『東方學志』 23·24, 1980 참조.

43) William J. Duiker, 'The Age of Phan Boi Chau'; *The Rise of Nationalism in Vietnam 1900~1941*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76) p. 40.

거늘, 이에 越南은 不然야 君黨을 尊하고 民權을 抑하며 虛文을 崇尚하고 武士를 賤視하고 盜賊이 庭에서 伺하거늘 妻兒는 室에서 酣睡하며 主人은 臥床에서 擁被하고 時時로 一欠伸할 뿐이라 嗚呼 危哉岌岌乎로다……⁴⁴⁾

라 하여 越南이 內政改革과 西歐學問의 수용을 등한히 하고 ‘尊君黨·抑民權·崇虛文·賤武士’ 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바로 儒學을 숭상하고 新學問에 대한 관심이 적어 亡國에 이르렀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견해는 아마도 지식인들에게 儒學의 무능과 부패가 亡國에 이른다고 인식시켰을 것이다. 舊韓末의 지식인들이 儒學을 배격하고 新學의 수용을 주장함에 있어 國譯本의 영향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밖에 國譯本은 종교계에 큰 파문을 던졌다. 天主敎會에서 발간하고 있던 주간지인 「京鄉新聞」은 1908년 4월 10일자부터 7월 31일까지 17차례에 걸쳐 〈근리 나는 칙을 평론〉이라는 기사를 실었다. 바로 國譯本이 天主敎의 배척에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즉,

거년 오월에 월남망국소라 하는 칙이 났스니 그새브러 우리나라해 그 칙을 본 사람이 만토다……새로 나는 만흔 칙중에 엇지하야 이 칙을 보는 이가 데일 만흔고……똑똑히 증거하논 말을 드론 즉 근리에 예수교인들이 여러 더방에서 전도홍채에 데일 그 칙을 풀어 찬미하여 극구 칭도하기를 이 칙에 잇논 말은 다 참말이라 하니 그 칙에 기록한대로 안남에 법국사람들이 다 괴악한 사람일지라도 예수교가 참교로 텃쥬교가 거짓교 되는 빙거논 아니어니와 우리나라 텃쥬교인들이 법국인인즉 안남에 법국사람을 위워하계 하논 거시 우리나라 텃쥬교를 위워하계 하논 거신 줄을 알겡고 또 그 칙을 예수교회장들이 풀게 하고 찬미하논도다……⁴⁵⁾

라고 하여 改新敎의 신자들이 國譯本을 天主敎의 배척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프랑스의 越南侵略을 비난한 『越南亡國史』에는 부분적으로 天主敎를 비난한 대목도 없지 않았다.⁴⁶⁾ 그러나 改新敎의 신자들이 國譯本

44) 『越南亡國史』, 亞細亞文化社本 p. 22.

45) 「京鄉新聞」 1908년 4월 10일자 〈근리 나는 칙을 평론〉.

46) 예컨대 國譯本에서 찾아본다면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客(潘佩珠)曰 我國이 亡기 前에 其僞鬼된 者 1 謂하되 私利가 有하리라 하야 法人을 引導하니 其一은 天主敎徒오 其一은 諂附하논 號라 此號가

을 天主教의 비난에 이용한 것은 그러한 내용에도 연유하겠지만, 그 보다 天主教가 프랑스의 종교로 알려진 당시의 인식 때문이었다. 즉 天主教는 프랑스의 종교로, 改新教는 美國의 종교로 알려져 있었다.⁴⁷⁾ 그러니까 프랑스를 비난한 내용을 담고 있던 國譯本이 天主教의 배척에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天主敎會에서는 國譯本을 毒藥에 비유하면서 그 購讀을 경계하였다.⁴⁸⁾ 「京鄕新聞」이 17 회에 걸쳐 조목 조목 國譯本의 내용을 공박한 것은 國譯本이 天主教의 배척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일이다.

V. 國譯『越南亡國史』에 대한 彈壓

國譯『越南亡國史』는 1909 년 5 월 5 일부터 親日政府의 탄압을 받기 시작하였다. 國權恢復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확산시켰던 國譯本에 대하여 정부에서 탄압조치를 취하였던 것이다. 바로 정부에서는 內部告示 제 27 호를 발표하였다. 즉,

右出版物은 治安을 妨害함으로 認호여기 出版法 第十六條를 依호야 該出版物의 發賣·頒布를 禁止함

隆熙 三年 五月 五日

內部大臣 朴齊純⁴⁹⁾

라고 하여 出版法 第 16 條에 의거하여 發賣·頒布를 금지한다고 하였다.

여지 君俘社屋과 烏臺弓藏함을 知호리오 法人이 此輩를 視호기 奴隸와 同호야 前此亡國키 前에는 特別한 利益을 與호다가 今에 至호야는 剝奪侵迫이 甚호 中에 天主教師가 더욱 束縛魚肉호는 故로 天主教徒의 怨毒이 尤極호야……(亞細亞文化社本, p. 10)

47) 李光麟, 「開化派의 改新敎觀」, 『歷史學報』 66, 1975; 『韓國開化思想研究』 pp. 212~213.

48) 「京鄕新聞」 1908 년 7 월 31 일자 <근리 나는 책을 평론>.

49) 『舊韓國官報』 1909 년 5 월 7 일자 <告示>.

이와 같은 탄압조치의 근거가 된 出版法은 1909년 2월 23일자로 반포되었는데, 同法令의 제 16 조는

內部大臣은 本法施行前 既히 出版한 著作物로 安寧秩序를 妨害하거나 又は 風俗을 壞亂한 虞가 有함으로 認한 境遇에는 其發賣 又は 頒布를 禁止하고 及該刻版·印本을 押收함을 得함⁵⁰⁾

이라고 하여 既刊書籍 가운데 安寧秩序와 風俗에 害된다고 인정된 서적에 대한 탄압조항이었다. 탄압의 내용은 發賣·頒布의 금지와 아울러 서적과 紙型의 압수도 규정되어 있었다. 親日政府는 新刊書籍은 검열과 허가로, 既刊書籍은 압수 등의 방법으로 反日的이거나 國權恢復意識을 고무시키는 서적을 탄압하였던 것이다.

이때 탄압조치를 받은 서적은 『越南亡國史』(玄采)·『월남망국사』(리상익)를 비롯하여, 『二十世紀朝鮮論』(金大熙)·『幼年必讀』(玄采)·『幼年必讀釋義』(玄采)·『中等教科東國史畧』(玄采)·『금수회의록』(安國善)·『우순소리』(尹致昊) 등 8種이었다.⁵¹⁾ 이들 서적의 저자들이 모두 國債報償運動에 적극 참여하고 있었음은 말할 것도 없지만,⁵²⁾ 내용은 反日的이거나 國權恢復을 강조한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의 서적탄압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서적 가운데 『越南亡國史』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었던 것은 정부가 이 책에 가장 주목하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 國譯本은 이 보다 먼저 1908년 7월 22일에 英雄傳 등과 함께 警務廳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다.⁵³⁾ 정부에서는 이미 이 시기부터 國譯本에 대한 탄압을 검토하였던 것이다.

서적탄압조치는 1909년 5월 7일자의 『官報』에 게재되었으나, 이미 5

50) 『舊韓國官報』 1909년 2월 26일자 <法律>.

51) 49)과 同.

52) 金大熙와 安國善은 國債報償期成會의 발기인이었고, 尹致昊는 國債報償志願金總合所의 事務員으로 활동하였다. 註 37) 및 『大韓每日申報』 1907년 4월 11일자 잡보 <組織總會>.

53) 『大韓每日申報』 1908년 7월 24일자 잡보 <書籍收入>.

월 6일 오전에 해당도서의 압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大韓每日申報」 1909년 5월 7일자 의 잡보 〈書籍押收〉라는 기사는

昨日 上午에 警務廳에서 漢城五部管內 各書店에 所有 越南亡國史・二拾世紀朝鮮論과 東國史略・幼年必讀並釋義와 우순소리 等 各種冊子를 壹切押收하였는데 其時觀光者를 이 舉皆痛嘆不已였더라

고 해당서적의 압수를 보도하였다. 『越南亡國史』는 1909년 5월부터 12월 까지 7개월 동안에 832冊이 압수되고 있었다.⁵⁴⁾ 그런데 이상하게도 周時經 번역의 國文本은 탄압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규제를 받았으리라 믿어진다. 國漢文本이 轉載되었던 『幼年必讀釋義』도 같은 탄압조치를 받고 있었는데 이 책만이 유독 규제를 받지 않았을 리 없었다.⁵⁵⁾ 따라서 1909년 5월 이후에 『越南亡國史』는 그 이전처럼 국민에게 널리 읽히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1906년 11월에 발간된 이래 여러 종류가 각기 重刊을 거듭하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서적들이 民間에 유포되었을 것이다.⁵⁶⁾ 그러므로 購讀이 가능하던 시기 보다는 그 독자가 줄었겠지만, 그

54) 『韓國獨立運動史』 1(國史編纂委員會, 1965) p. 338.

55) 『統監府 第3次施政年報：明治42年(1909)』(朝鮮總督府, 1911) pp. 67~68에 의하면 1909년에 압수된 서적이 9종, 총 5,767부였다. 1909년에 압수처분을 받은 서적은 5월 5일에 8종, 7월 10일에 『勉菴先生文集』, 10월 8일에 『東國文獻補遺』 등 모두 10종이었다. 그러나 統監府에서는 압수한 서적을 9종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越南亡國史』의 경우, 國漢文本과 國文本을 별개로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周時經 번역의 國文本은 탄압조치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실제로는 압수되었을 것이다. 후 漢文本이 판매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역시 압수되었으리라 생각된다.

56) 1908년 2월에 간행되어 3개월 만에 再刊되는 등 舊韓末에 선풍적인 관심을 모았던 安國善의 『禽獸會議錄』이 1909년 5월에 압수될 때까지 4萬部가 판매되었다는 기록이 있다(安懷南, 「先考遺事」, 『博文』 3-5, 1940, p. 2). 그러나 1년 수개월 동안에 4萬部가 판매되었다는 것은 과장이었으리라 생각된다. 1909년에 압수된 부수가 203부였음에서도 그렇다(註 54) 참조). 다만 4萬部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당한 수에 이르렀음에는 틀림이 없다. 國譯 『越南亡國史』는 여러 종류가 있었고, 또 각기 重刊하고 있었으므로 『禽獸會議錄』보다 오히려 많이 간행되었을 것이다.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그 영향력까지 감소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음성적으로 읽혔고 또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1930년대 末에 이르러서도 이 책이 국민들의 입에 오르내렸다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⁵⁷⁾

Ⅵ. 맺는말

舊韓末 日本에 의하여 국권이 침탈되어 국권회복이 국민들의 주된 관심이 되던 시기에 널리 읽히고 영향을 미친 國譯『越南亡國史』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그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여 結論에 대신하고자 한다.

『越南亡國史』는 越南의 독립운동가 潘佩珠와 清末의 사상가 梁啓超가 日本에서 만나 越南의 亡國에 관하여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1905년 10월 경에 上海에서 간행되었다. 이 책은 中國과 越南 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널리 읽혔다. 舊韓末에 많은 영향을 끼친 梁啓超가 撰者였다는 점과 한국과 越南이 처한 상황의 유사성에서 가질 수 있는 同質意識 등이 이 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漢文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독자층이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亡國의 과정과 亡國 후의 慘狀을 알려 국권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國譯이 시도되었다.

「皇城新聞」은 이 책의 일부를 번역하여 1906년 8월에 연재하였고, 이어 11월에는 玄采의 國漢文 번역본이 간행되었다. 이 國譯本은 한국의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梁啓超의 논설 〈越法兩國交涉〉·〈滅國新論〉

57) 1939년 末 「朝鮮日報」에 〈朝鮮新文學史〉를 연재한 林和는

……그런데 이 가운데도 가장 熱血文字는 亦是『越南亡國史』로 이 冊은 아직까지 人口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라 하여 그때까지도 國譯本이 사람들에게 云謂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林和, 〈朝鮮新文學史〉, 『韓國文學史研究叢書』 1(三文社, 1982) p. 490.

·〈日本の朝鮮〉등을 수록하고 있었다. 간행된 지 6개월 만에 再版이 나온 國譯本은 大邱의 廣文社에서도 간행되었고, 또 『幼年必讀釋義』에도 그 全文이 轉載되었다. 그리고 1907년 末에는 2種의 國文 번역본이 출간되어 婦女子와 학도들을 포함하여 그 독자층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國譯本이 널리 보급된 것은 당시 私立學校들의 교과서로 사용된 점과 國債報償運動의 전개와 관련이 있었다. 특히 國文本은 국민들을 國債報償運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간행되었다고 믿어진다.

國譯本은 국민들에게 국권회복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다. 특히 國債報償運動의 발기와 전개에 영향을 미쳤다. 또 儒學이 亡國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舊學을 배척하게 되는 배경에도 國譯本의 영향이 있었으며, 프랑스의 종교로 알려진 天主教의 배척에도 이용되고 있었다. 결국 國譯本은 국민들에게 국권회복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확산시켰던 것이다.

이렇게 널리 보급되고 영향을 미친 國譯本에 대하여 親日政府和 統監府가 주목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09년 2월에 제정된 出版法에 의거, 國譯本은 발매·반포의 금지 및 압수의 탄압을 받았다. 1909년 5월 이후 이 책은 정부의 탄압으로 공식적인 구독이 금지되어 이전과 같이 널리 읽히지는 못하였지만, 그 영향은 韓日合併 뒤에도 미치고 있었다.

國譯『越南亡國史』는 1900년대 후반기 日本에 의해 국권이 침탈되던 한국사회에 亡國에 대한 지식을 소개한 단순한 外國史記로만 이해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처한 상황을 인식시키고, 그 나아갈 지표를 제시한 책으로 이해되고 있었던 것이다. 국권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활동들이 바로 國譯本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